

허난쇼현

수월경화(水月鏡花)

許蘭
雪軒

달빛 물에 비치고
꽃은 거울에 비치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 수록
체력적으로 뭐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제처럼, 작년처럼
내 일을 해 낼 수 없고
그렇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죠.

뭐든,
시작해 봐야지”

2021 삼성화재 캠페인 '건강관리의 시작' 중



건강관리의 시작이 쉬워지도록
삼성화재 애니핏



국립발레단
 수월경화(水月鏡花)
 수월경화(水月鏡花)



2021.5.22(SAT)~5.23(SUN)

SAT 15:00, 18:00 / SUN 15:00

국립극장 달오름

음악 황병기, 한진, 김준영, 심영섭, 박우재 안무 강효형 음악감독 김준영

연주 거인아트랩, 경기가야금앙상블 무대 박연주 의상 정운민 조명/영상 백시원

단장 겸 예술감독 강수진 출연 국립발레단 공연시간 약 60분 (휴식 없음)

예매처 국립극장 ntok.go.kr 02-2280-4114, 인터파크 티켓 ticket.interpark.com 1544-1555

티켓가격 R석 30,000원 / S석 15,000원 / A석 5,000원 입장연령 8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함)

세계초연 2017년 5월 5일,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국립발레단)

문의 국립발레단 02-587-6181 www.korean-national-ballet.kr 협찬 SAMSUNG 삼성화재

국립발레단

KOREAN NATIONAL BALLET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대한민국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한국 발레 역사의 상징과도 같다. 60여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무용수와 안무가, 그리고 훌륭한 예술감독과 작품 덕분에 국립발레단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내 최정상 무용수 80여 명과 세계적인 명작들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 끊임없이 관객들을 찾아가고 있다.

국립발레단의 대표적인 전막 작품으로는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인형〉, 〈스파르타쿠스〉, 〈라 바야데르〉, 파트리스 바르의 〈지젤〉, 마르시아 하이데의 〈짐자는 숲속의 미녀〉, 존 크랭코의 〈말팔랑이 길들이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베 솔츠의 〈교향곡 7번〉, 글렌 테틀리의 〈봄의 제전〉, 조지 발란신의 〈세레나데〉, 크리스티안 슈퓹의 〈안나 카레니나〉, 레나토 자넬라의 〈마타 하리〉 등을 연이어 선보이며 클래식 발레에서 모던발레, 네오클래식 발레, 드라마 발레 등 폭넓은 장르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고유의 창작 발레 레퍼토리 개발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각각 설화와 고전시를 배경으로 한 〈왕자호동〉, 〈허난설한-수월경화〉 등이 대표적이다. 2019년 발표한 신작 〈호이 랑〉 역시 한국적 이야기를 서양의 몸짓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한국 창작발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립발레단의 고유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2015년부터 시작된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인 〈KNB Movement Series〉를 통해 단원들이 무용수뿐만 아니라 안무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는 신진 안무가 발굴을 통한 무용수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탄탄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립발레단의 레퍼토리 개발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국립발레단은 국내 발레의 대중화라는 큰 의무를 위해 공연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찾아가는 지역공연', '찾아가는 발레교실' 등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해외로도 활동 범위를 넓혀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올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으로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작품소개

INTRODUCTION

수월경화(水月鏡花)

물에 비친 달, 거울에 비친 꽃

조선 중기 천재 여류 시인 허난설헌,
아름답지만 가혹했던 그녀의 삶과 시가 무대 위로 옮겨진다

여성의 재능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조선시대에 자신의 신념을 빼어난 글 솜씨로 풀어내 당대 문인들의 극찬을 받았던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 그녀가 남긴 많은 시 중에서 <감우(感遇)>와 <몽유광상산(夢遊廣桑山)>이 안무가 강효형의 섬세한 감성으로 무대 위에 다시 피어난다.

안무가 강효형은 '물에 비친 달, 거울에 비친 꽃', 즉 눈으로 볼 수는 있으나 만질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 '수월경화(水月鏡花)'를 작품의 부제로 붙임으로써 '허난설헌의 시의 정취가 너무 훌륭해 이루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강효형은 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잎, 새, 난초, 바다, 부용꽃 등 다양한 소재를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형상화하여 60분간의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허난설헌-수월경화>에는 많은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여자 무용수들이 마치 병풍 앞에서 글을 써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 '난' 장면과 허난설헌의 고향인 강릉 앞바다의 파도를 보고 영감을 얻어 안무한 '바다' 장면은 역동적이고 강렬한 군무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또한 스물일곱 어린 나이에 삶을 마감한 허난설헌의 안타까운 삶을 시들어가는 꽃에 빗대어 표현한 마지막 '부용꽃' 장면은 쓸쓸한 음악과 어우러져 관객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장면이 될 것이다.

안무가와 단원들이 함께한
<허난설헌-수월경화> 리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안무

CHOREOGRAPHER



강효형

학력	2010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경력	2009 국립발레단 입단
수상	2004 한국발레협회공쿠르 특상
	2005 동아무용공쿠르 은상
	2006 불가리아 바르나 국제발레공쿠르 세미파이널리스트
	2008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수석
	2008 광주발레협회공쿠르 1등
	2008 이탈리아 프리미오 로마 파이널리스트
	2009 동아무용공쿠르 금상
	20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017 러시아 브누아 드 라 당스 안무가 부문 노미네이트
	안무작
	2016 <Slashing Through the Light(빛을 가르다)>
	2017 <허난설현-수월경화>
	2018 <Shape of Panthers>
	2019 <호이 람>

<허난설현-수월경화>의 안무가 강효형은 국립발레단의 솔리스트로, 지난 2015년 <KNB Movement Series 1>부터 꾸준히 안무작을 발표하며 무용수뿐만 아니라 안무가로서도 그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있다.

그녀의 첫 번째 안무작 <요동치다>는 초연 당시 독특한 움직임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듬해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Next Generation> 행사에 초청되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 2016년 <KNB Movement Series 2>에서 선보인 <Slashing Through the Light(빛을 가르다)> 역시 그녀가 가진 특유의 움직임을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듬해인 2017년에 <허난설현-수월경화>를 안무하며 한국적 아름다움을 한껏 살린 첫 전막 작품을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렸다. 이 작품은 초연 이후 국립발레단의 해외 투어(콜롬비아, 캐나다) 무대에 올랐을 뿐 아니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축하공연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강효형은 2018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제5회 안무가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Shape of Panthers>를 선보여 현지 관객들과 언론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처럼 안무가로서 승승장구하던 강효형은 2019년, 마침내 국립발레단의 신작 정기공연 <호이 람>의 안무를 맡아 2막으로 구성된 대작을 선보임으로써 안무가로서의 그녀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며 활발하고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허난설헌

HEO NAN SEOL HEON



“허균의 누이가 일곱 살에 능히 시를 지었으므로 은 나라에 여신동이라 불렸다.” 중국 《양조평양록》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이 살았던 16세기 조선시대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집안을 지키고 후세를 낳아 기르는 역할만을 맡아 순응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여성이 자기 이름으로 시를 쓰고 이를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남성 중심의 가치체계가 확고해지던 시대에 허난설헌이라는 여성 시인의 등장과 그 삶의 궤적은 그녀의 천재성과 함께 당시 여성들의 고통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허난설헌은 조선 중기 문신인 허엽의 딸로 태어났으며 위로는 당대 뛰어난 문인으로 평가받은 허성·허봉, 아래로는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의 누이이다. 아버지 허엽은 여러 분야에 비교적 열려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에 대한 열린 가풍은 딸 허난설헌에게도 남자와 똑같은 교육 기회를 주었다. 오빠 허봉은 허난설헌의 문재를 일찍이 알아보고 자신의 친구이자 뛰어난 시인 이달에게 여동생의 교육을 부탁하였고 가문과 스승의 격려 속에서 허난설헌은 조선시대 규중의 유일한 여성 시인으로 성장하여 갔다.

하지만 15살 무렵 명문 가문의 김성립과 결혼했으나, 자유로운 가풍을 가진 친정에서 거부장적인 가문으로 시집간 허난설헌은 지식인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갈등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이후 친정의 몰락, 무능한 남편, 두 아이의 죽음 등으로 정신과 육체가 모두 쇠약해진 허난설헌은 부용꽃 스물일곱 송이가 지듯이 27세의 나이로 목숨을 거두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명시는 유언대로 모두 태워졌지만, 동생 허균은 찬란한 천재성을 가진 누이의 작품들이 불꽃 속에 스러지는 것이 안타까워 그녀가 친정집에 남겨놓고 간 시와 자신이 암송한 시들을 모아 《난설헌집》을 펴냈으며 이는 중국과 일본의 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끌었다.

조선 중기, 여성에게 가장 혹독했던 시기에 주옥같은 시를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떠난 허난설헌. 그녀의 흔적은 강원도 강릉 일대의 생가와 허균·허난설헌 기념공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인물한국사 허난설헌, 글 김정미

[네이버 지식백과] 허난설헌(許蘭雪軒)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허난설헌연구(許蘭雪軒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허미자

《문화인물》(허균·허난설헌) 9월호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1 장정룡

《허난설헌과 강릉》(강릉시, 1998), 장정룡

시놉시스

SYNOPSIS



감우

(感遇 느낀 대로 노래한다)

-허난설현

하늘거리는 창가의 난초 가지와 잎 그리도 향그럽더니,
가을바람 잎새에 한번 스치고 가자 슬프게도 찬 서리에 다 시들었네.
빼어난 그 모습은 이울어져도 맑은 향기만은 끝내 죽지 않아.
그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져 눈물이 흘러 옷소매를 적시네.

몽유광상산

(夢遊廣桑山 꿈속 광상산에서 노닐다)

-허난설현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에게 기대었구나.
부용꽃 스물일곱 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해라.



*허난설현 삶의 흐름

초기(향그럽더니)

중기(다 시들었네)

말기(부용꽃 스물일곱 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허난설현-수월경화〉 안무가의 이야기, 그리고 음악

황병기 -춘설: 조용한 아침

무대 위에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어가는 허난설현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작품에서 허난설현은 〈감우〉와 〈몽유광상산〉 두 개의 시에서 화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무대 뒤에 펼쳐진 병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앞으로 그녀 자신이 쓴 시 속 세계로 들어가
실존 인물로서가 아닌 시 속의 화자(시인)로 등장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김준영 -말 없이 고이?!

병풍 앞에 펼쳐지는 여인들의 무게감 있고 힘있는 춤사위가 그녀가 백지 위에 써 내려간 붓글씨를 연상케 합니다.
그렇게 백지 위에 먹이 칠해지듯 그려지던 춤사위는 어느덧 시 속에 등장하는 난초의 형상으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하늘거리는 창가의 난초가"라는 시 구절 하나에 떠오른 동양화의 이미지를
무용으로 표현하고자 한 안무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황병기 -춘설: 익살스럽게 -달하 노피곰: 고요하게

무대 위에 새가 등장합니다. 〈몽유광상산〉에 나오는 새를 작품 초입부터 등장시켜
허난설현의 행복하고 따뜻했던 시절에 대한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는 뒤에 〈몽유광상산〉의 슬픈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이 되기도 하지요.

황병기 -하마단: 자진모리 풍으로 -하마단: 휘모리 풍으로 -침향무: 2장, 3장

향기롭고 싱그러운 난초 가지를 묘사한 춤들이 때로는 화사하게, 때로는 고요하지만 힘있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곧 가을바람이 불고 푸르던 난초들도 시들기 시작합니다.

한진 -월하정인(月下情人)

결국 가을바람에 시들어버린 난초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춤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시 속 화자인 시인이 등장해 시들어버린 난초 가지에서 느낀 연민을 애달프게 표현합니다.
그녀가 시든 난초 가지를 보면서 옷소매가 젖도록 슬피 운 이유는
시들어가는 난초 가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그녀 또한 난초들과 함께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박우재 -Bowling

평화롭고 행복했던 그녀의 삶이 서서히 그녀를 옥죄는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슬픔들로 인해 어둡게 변해갑니다.
그녀를 압박했던 현실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장면이지요.
앞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는 남자는 허난설현 본인이 느꼈던 처절한 마음의 고통에 대한 형상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던 현실 혹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던 남편의 형상일까요?

김준영 -수장(水葬)

현실의 괴로움을 잊고자 그녀는 꿈 혹은 신선 세계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허난설헌이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몽유광상산>의 배경인 꿈속으로 발을 내딛으며
꿈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황병기 -밤의 소리: 신비롭게 -밤의 소리: 걱정적으로 -남도 환상곡: 다스름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
철썩이는 바다의 파도가 시인을 또 어딘가로 이끕니다.

심영섭 -하늘을 날다

푸른 난새와 채색 난새가 어울려 춤을 추며 곧 닳쳐올 슬픈 시인의 마지막을 예고합니다.
부용꽃 스물일곱 송이가 붉게 떨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것처럼,
붉은 꽃잎이 한 송이 한 송이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숨은 꺼져갑니다.
시인이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머물고 싶어했던 세계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였겠지요...
자신의 시 속 세계처럼 말입니다.



〈허난설현-수월경화〉 음악 이야기

Music Director/Music 음악감독 및 음악



김준영

학력 서울대학교 음악박사

경력 거인아트랩 대표/예술감독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 역임

수상 2018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2016 KBS 국악대상 연주상 수상
제24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

시(詩)는 많은 예술 창작자에게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글_음악감독 김준영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라는 말처럼, 간결한 시어(詩語) 안에 함축되어 있는 많은 의미들이 읽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허난설현-수월경화〉는 허난설현의 시 중 단 두 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발레지만 한 시간여 동안 시적 정서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며 지은이의 삶을 함축하는 또 한 편의 시로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사공간이 응축된 것 같은 이 작품을 보며 ‘몸으로 쓰는 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난설현-수월경화〉의 음악 작업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위한 음악들을 새로 작곡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작곡된 곡들 중 이 작품의 정서와 부합할 수 있는 곡들을 안무자가 직접 골라 사용했습니다. 시 안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제각각의 의미로 제각각의 시기에 만들어진 음악들이 이 작품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은 간결한 악기 구성을 통해 보완되었습니다. 이 작품에 사용된 음악들은 가야금과 거문고 단 두 종의 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들입니다. 가야금과 거문고는 오랜 시간 동안 한민족의 정서를 담아 온 현악기입니다. 발현(撥絃)악기인 이 악기들은 줄을 한번 튕기면 소리가 지속되지 않고 곧바로 사그라집니다. 사그라지는 소리 너머로 아련하게 들려오는 명주실의 떨림, 음과 음 사이의 빈 공간 등은 우리를 더 넓은 시적(詩的) 사유(思惟)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허난설현-수월경화〉에는故황병기 명인의 가야금 작품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전통에 굳건히 발을 딛고 새롭게 창작된 그의 작품들은 시대를 넘어 명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춘설〉, 〈달하 노피꿈〉, 〈하마단〉, 〈침향무〉, 〈밤의 소리〉, 〈남도 환상곡〉 등은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정서를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작품 내에서 변곡점이 되는 부분에는 거문고 음악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김준영 작곡 <말없이 고이?!>는 붓으로 시를 쓰는 장면이 사용되었는데, 거문고는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로 연주하여 흔히 그 연주법이 붓놀림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박우재 작곡 <Bowling>은 거문고를 활대로 연주하는데, 작품 안에서 가장 절절한 장면이 거문고의 묵직한 지속음과 날카로운 활대질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준영 작곡 <수장(水葬)>은 심연에 잠긴 고통과 이를 벗어난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작곡한 곡인데, 이 작품에서도 고통을 잊기 위한 꿈 속 세계의 장면에 연주됩니다. 여기에 25현 가야금 네 대의 합주로 연주하는 한진 작곡 <월하정인>은 가을의 서늘한 정서에 맞춘 듯이 달아있고, 심영섭 작곡 <하늘을 날다>는 새로운 탄생을 예견하는 소멸의 정서와 잘 어우러지며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이 작품에 한국적, 서양적, 현대적, 전통적, 서사적, 서정적.. 어떠한 구분과 의미 지음이 필요할까요? 그저 과정에서 비롯된 오늘의 이 이상한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시 한 편을 통해 비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꺼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난설헌-수월경화>는 초연부터 줄곧 미리 녹음한 음원으로 공연되었으나 이번 공연에서는 실제 연주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녹음 음원은 늘 해결같이 연주된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실제 연주에서 벌어지는 무용수와 연주자 간의 밀도 있는 긴장과 호흡, 에너지의 공유에 비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애써주시는 국립발레단과 연주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Music 음악



故 황병기 (1936~2018)

학력 1955 경기고등학교
 195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2000 단국대학교(음악학 명예박사)

경력 1959~63 서울대학교 국악과 강사
 1965 워싱턴주립대학교 강사
 1965 미국 하와이대학교 East-West Center와
 한국인 최초 음반 출판
 1974~0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1986 하버드대학교 객원교수
 1990 평양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서울전통음악단장
 1994 국악의해 조직위원장
 1995~99 문화재위원
 2005 광복60주년기념 문화사업 추진위원장
 2000 대한민국예술원 입회
 2001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위촉
 2003~09 연세대학교 특별초빙교수
 2006~11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2009 대한민국예술원 부회장
 2012~18 아르코 창작관현악제 추진위원장
 2012 백남준문화재단 이사장
 2015 백남준문화재단 명예 이사장

상훈 1957 KBS 전국국악콩쿠르 최우수상
 1965 대한민국 국악상
 1974 한국영화음악상
 1992 중앙문화대상
 1995 백상예술대상
 2003 방일영국악상
 2003 은관문화훈장
 2004 호암상
 2006 대한민국예술원상
 2006 타워상
 2007 한국음악상 특별상
 2008 일맥문화대상
 2010 후쿠오카 아시아문화상 대상
 2015 만해문화대상
 2018 금관문화훈장

대표 가야금作品集

〈침향무〉, 〈비단길〉, 〈미궁〉, 〈춘설〉, 〈달하 노피곰〉
 〈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

저서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초판 1994, 재판 2012, 도서출판 풀빛)
 “가야금 선율에 흐르는 자유와 창조-황병기의 삶과 예술 세계”
 (2008, 도서출판 생각의나무)
 “오동 천년, 탄금 60년-가야금 명인 황병기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2009, 랜덤하우스코리아)
 “가야금 명인 황병기의 논어 백 가락”(2013, 도서출판 풀빛)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Music 음악

한진



학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단국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학 박사

경력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한국국악교육학회 이사
한국전통문화원 이사
용인대학교 국악과 교수
청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작품 〈비조〉, 〈夢〉, 〈門_Soul Gate〉 외 다수

심영섭



경력 현) 락 엔터테인먼트 작곡가 겸 프로듀서
현) 한국폴리텍대학 겸임교수, 단국대학교 출강
전) 용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출강

수상 21세기 한국음악상(2007, 문화체육관광부)
Yepp Music Tuning Award 대상(2007, 삼성전자/제일기획/M.net)
올해의 젊은 국악인상 신인상(2009, 젊은국악조직위원회/동아일보/문화체육관광부)

프로듀싱 및 활동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개막식 사운드 디자이너(Show 1)
국악방송 '콘서트 오늘' 시즌2, 시즌3 음악감독
'Sounds of Korea' 음악감독 및 작곡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표곡: '난감하네', '어사출도' 외 다수

저서 프로를스를 활용한 작곡과 프로듀싱(2015, 도서출판 동락)

박우재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사

경력 무토(MUTO) 멤버
Carlos Acosta의 duet, Mermaid 작곡
(안무 Sidi Larbi Cherkaoui)

수상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Instrumental Players 연주

거문고 김준영 서정곤 박우재 이재하

가야금 이해정 허나래 이가희 이가현 박세연 이지혜

장구 김인수

〈허난설현-수월경화〉 의상 이야기



허난설현

〈허난설현-수월경화〉는 ‘시인’ 허난설현의 삶을 통찰한 작품인만큼 의상 또한 허난설현 시의 모티브가 된 ‘한’과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클_의상 디자이너 정윤민

안무가에게 영감이 된 허난설현의 두 편의 시 〈몽유광상산〉과 〈감우〉에서 어린 시절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서 사대부 사상이 강했던 조선시대 중후기를 살아가야 했던 인간적 비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약된 삶 속에 갇힌 자신의 현실을 자연의 아름다움에 빚대어 노래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는 모습은 역설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탁월한 천재성과 감수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늘 갈증 속에 살아야 했던 허난설현의 인생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자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이번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수월경화



허난설현, 난, 새, 잎, 가을, 그림자, 꿈, 바다, 그리고 부엉꽃이라는 주제 하에 몽환적이고 양면성을 띤 허난설현의 시처럼 조명에 따라 이중 톤이 나는 가벼운 소재들을 선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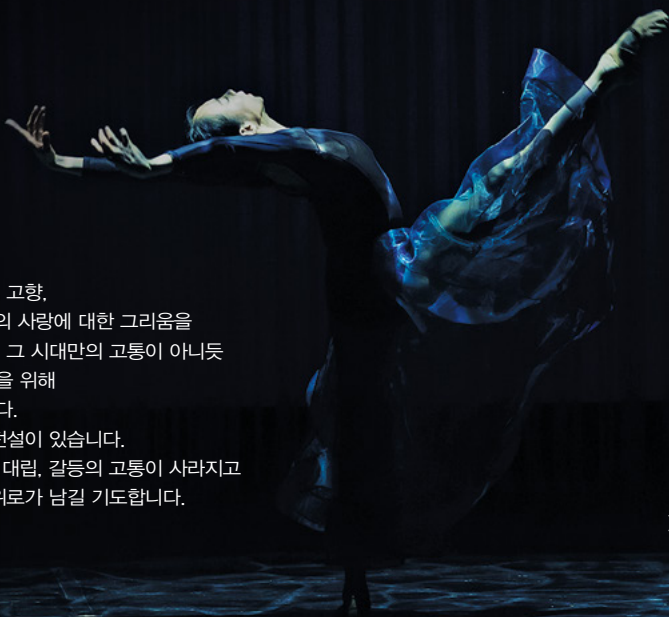
그리고 전통적인 관습에 힘들었던 허난설현 삶의 테두리를 작품 안에서라도 자유롭게 하고 싶어 기존 한복의상 디자인을 탈피한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실루엣을 살리는 데 디자인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대신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 전통의상 소재인 실크오간자, 옥노방, 쉬폰을 메인 원단으로 선택하였으며 전반적인 색감은 그녀의 슬픈 삶을 나타내고자 원색에서 한 톤 다운시킨 색감과 무채색을 썼습니다.

가야금과 거문고 선율의 단순하지만 큰 울림 위에 시각적 풍성함을 덧입히기 위해 입체재단 및 손주름을 통한 오프꾸뛰르 작업의 정성이 작품의 전체적인 시각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길 바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요절한 허난설현의 순수함과 그녀의 고향, 아름다운 강릉 앞바다에 대한 향수, 그리고 가족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아름다운 시로 승화시킨 그녀의 메아리가 단순히 그 시대만의 고통이 아니듯 현 시대에도 같은 마음을 느낄 모든 이들의 위안을 위해 아름다운 춤과 함께 더 멀리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오색 빛의 난새가 나타나면 태평성대가 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무대 위 푸른 난새가 날아오를 때 세상의 분쟁과 대립, 갈등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관객분들의 가슴에 작품의 따스한 감동의 위로가 남길 기도합니다.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Set Design 무대 디자인



박연주

경력 무대디자이너 안녕, 여름 (2021, 2016), 소생 (2020), 남풍 (2019), seven (2018), 3일간의 비 (2017), 비보이픽션 코드네임 815 (2017)
무대협력디자이너 무한동력 (2018), 아이러브유 (2017)
무대 어시스턴트 Jekyll & Hyde (2016), Mata Hari (2016), Jesus Christ Superstar (2015), Dracula (2014) 외 다수

Costume Design 의상 디자인



정윤민

학력 Manhattan School of Music 성악 전공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뉴욕 주립 대학 패션 단과 대학 졸업

경력 현) 라실루엣드유제니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및 Clelia Chung 드레스 디자이너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우, 르네 플레밍, 황수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신지아, 김수연 등 다수의 아티스트들 무대의상 디자인 및 개인 맞춤 디자이너.

예술의전당 기획 '한국소극장 오페라축제'; 춘향탈옥 의상감독
통영국제음악제 블랙박스 개막작 디어루나 미술감독
발레축제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김주원의 탱고 발레 'Su Tiempo, 그녀의 시간' 전막 의상감독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콘서트오페라 '토스카' 메트로폴리탄 대표 소프라노 제니퍼 라울리 전막 의상들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콘서트오페라 '휘가로이 결혼'
국립극장 '좋은밤콘서트' 여우락 페스티벌
아르코극장 김설진인무작 '솔로리스트'

호텔 포시즌스 서울 'The Art of Romance' 단독 로비 디스플레이 전시회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Light&Projection Design 조명&영상 디자인



백시원

학력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수료

수상 제14회 뮤지컬대상 기술상

경력 [뮤지컬] 광주, 귀환, 그날들, 랭보, 스모크, 원스어폰어타임 인 해운대, 브로드웨이42번가, WICKED, 오페라의 유령, 아가씨와 건달들, 카르멘, 살짜기움서예, 번지점프를 하다, 스프링어웨이크닝, 내마음의 풍금, 스위니 토드, 지붕 위의 바이올린 외 다수

[발레] 마타하리, 무브먼트 시리즈,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스파르타쿠스, 말괄량이 길들이기, 돈키호테, 지젤, 라비아데르, 백조의 호수, 해난설현, 로미오와 줄리엣, 왕자호동 외 다수

[콘서트] 앤드류로이드웨이버 70주년 기념콘서트



캐스팅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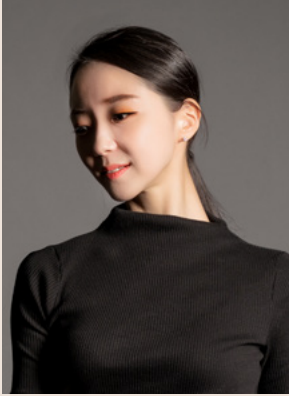
	5월 22일(토) 15:00	5월 22일(토) 18:00	5월 23일(일) 15:00
시인(허난설현)	신승원	박슬기	신승원
시인의 이상(理想)	김기완	이재우	김기완
푸른 난새	김명규A	김준경	전호진
채색 난새	김나연	김희선	
잎	박나리 김희선 심현희 김기령 원정윤	박나리 김나연 심현희 김기령 원정윤	
하마단	김희선 심현희 김기령 김준경 배민순 김명규A	박나리 심현희 김기령 김준경 배민순 김명규A	박나리 심현희 김기령 전호진 배민순 김명규A
침향무	조연재 안성준	김나연 전호진	조연재 안성준
드림	조연재 곽화경 박종석 김태석	정은영 이하연 김기완 변성완	조연재 곽화경 박종석 김태석
바다 솔리스트	박슬기	신승원	박슬기
난(蘭) 1st Part	정은영 최지인 곽화경 이은서 심소연 박서현 이하연 정은지		
난(蘭) 2nd Part 솔리스트	이은서		
난(蘭) 2nd Part	김지현 김경림 심소연 김재민 박서현 이하연 안수연 이윤희 양희재		
가을	정은영 곽화경 최지인 정은지 이재우 변성완 송정빈 이유홍	정은영 곽화경 최지인 정은지 이재우 김기완 송정빈 이유홍	정은영 곽화경 최지인 정은지 이재우 변성완 송정빈 이유홍
쉐도우 솔리스트	배민순		
쉐도우	김나연 김준경 김명규A 김명규B		
바다	박나리 김경림 김기령 민소정 가수지 심현희 김재민 하지석 이유홍 강경모 류제원 곽동현 박재현 안성준 양준영		
부용꽃	박나리 정은영 김지현 김경림 심소연 조연재 이하연 이윤희 변성완 이수희 송정빈 이유홍 강동휘 류제원 곽동현 강경모	박나리 정은영 김지현 김경림 심소연 조연재 이하연 이윤희 김기완 이수희 송정빈 이유홍 강동휘 류제원 곽동현 강경모	박나리 정은영 김지현 김경림 심소연 조연재 이하연 이윤희 변성완 이수희 송정빈 이유홍 강동휘 류제원 곽동현 강경모

*상기 캐스팅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캐스팅

CAST

시인(허난설현)



박슬기

- 학력** 2008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 경력** 2007 국립발레단 입단
- 수상** 2006 동아무용콩쿠르 금상
2006 불가리아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3위
2007 중국 상하이 국제발레콩쿠르 심사위원 특별상
2007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금상
2007 헝가리 부다페스트 초청 갈라 평론가상, 관객상
2009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위
2009 한국발레협회 신인상
2012 한국발레협회 프리마 발레리나상
2017 한국춤비평가협회 춤연기상
2017 러시아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여성무용수상 노미네이트
- 안무작** 2016 〈Quartet Of The Soul〉
2018 〈Smombie〉



신승원

- 학력** 2008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졸업
2016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졸업
- 경력** 2009 국립발레단 입단
- 수상** 2003 스위스 로잔 국제무용콩쿠르 최연소 파이널리스트
2006 러시아 바가노바 국제발레콩쿠르 두딘스카야상, 베스트커플상
2006 동아무용콩쿠르 은상
2007 미국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동상
200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초청 공연
2010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은상
2010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위
2013 한국발레협회 프리마 발레리나상
2020 (사)창무예술원 제26회 무용예술상 연기상
- 안무작** 2016 〈The Natural〉
2018 〈시간에 달다〉
2019 〈Go your own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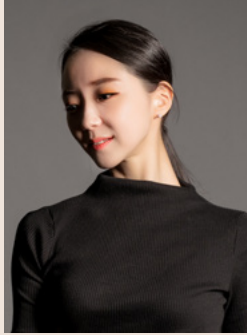




국립발레단 무용수

ARTISTS OF KOREAN NATIONAL BALLET

Principals 수석무용수



Park Seulki
박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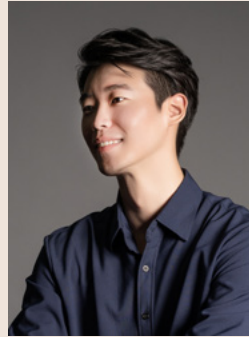
Lee Jaewoo
이재우



Kim Lihoe
김리회



Shin Seungwon
신승원



Kim Kiwan
김기완



Park Yeeun
박예은



Heo Seomyeong
허서명



Park Jongseok
박종석

국립발레단 무용수

ARTISTS OF KOREAN NATIONAL BALLET

Soloists 솔리스트



Lee Soohee
이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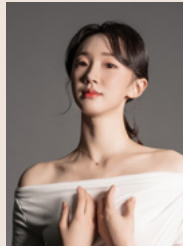
Song Jungbin
송정빈



Jung Eunyoung
정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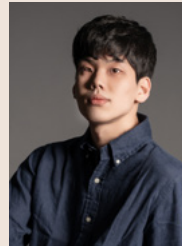
Bae Minsoon
배민순



Han Narea
한나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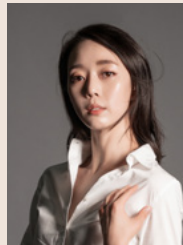
Kim Heehyun
김희현



Byun Seongwan
변성완



Kang Hyohyung
강효형



Park Nari
박나리



Ha Jiseok
하지석

국립발레단 무용수

ARTISTS OF KOREAN NATIONAL BAL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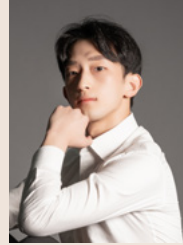
Demi Soloists 드미 솔리스트



Lim Sungchul
임성철



Kim Myungkyu
김명규A



Kim Myungkyu
김명규B



Sun Hohyun
선호현



Lee YooHong
이유홍



Kim Seongeun
김성은



Sim Hyunhee
심현희



Kim Taeseok
김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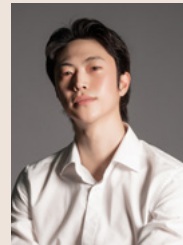
Kwak Hwakyung
곽화경



Kim Heesun
김희선



Kim Jihyeon
김지현



Ku Hyeonmo
구현모

국립발레단 무용수

ARTISTS OF KOREAN NATIONAL BALLET

Corps de Ballet1 코르 드 발레1



Kim Jihee
김지희



Choi Jeein
최지인



Choi Mire
최미레



Kim Kyoungrim
김경림



Ko Hena
고혜나



Seo Hyuni
서현이



Lee Eunseo
이은서



Kim Nayeon
김나연



Jeon Hojin
전호진



Kang Donghui
강동휘



Kim Kiryong
김기령



Min Sojung
민소정



Ki Suji
기수지



Shim Soyeon
심소연



Ryu Jewon
류제원



Cho Yeonjae
조연재



Cheon Jeongmin
천정민



Kim Junkyoung
김준경



Kim Jaemin
김재민



Park Seohyun
박서현



Eom Nayun
엄나운



Kang Gyuongmo
강경모



Kwak Donghyeon
곽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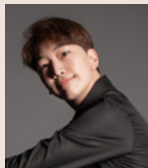
Park Jehyun
박제현



Lee Hayeon
이하연



Huh Wan
허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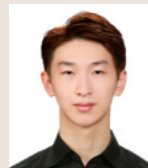
Lee Myeonghyun
이명현



An Seongjun
안성준



An Suyeon
안수연



Yang Junyoung
양준영



Jung Eunji
정은지

국립발레단 무용수

ARTISTS OF KOREAN NATIONAL BALLET

Corps de Ballet2 코르 드 발레2



Ko Jin
고진



Lee Yoonhee
이윤희



Won Jungyoon
원정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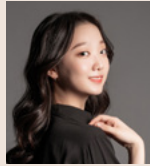
Nam Heurin
남혜린



Park Hyerim
박혜림



Ko Sewon
고세원



Park Yujin
박유진



Eum Jinsol
엄진솔



Jung Euijin
정의진



Lee jayoon
이지윤



Lim Nayoung
임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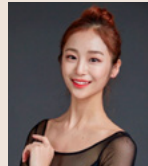
Hwang Jeongye
황정예



Kim Byeol
김별



Song Jeongeun
송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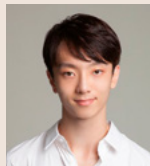
Lee Jihee
이지희



Han Shinhyoung
한신형



Hwang Suyeon
황수연



Park Jiwon
박지원



Shin Yungyu
신연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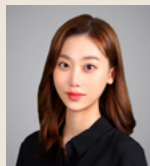


Lim Jinhwan
임진환

Trainees 연수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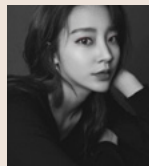
Park Haeun
박하은



Shim Eunsul
심은솔



Choi Eunsu
최은수



Jin Sola
진솔아



Yang Heejae
양희재

예술스태프

ARTISTIC STAFF



Artistic Director

Kang Suejin

단장 겸 예술감독 강수진



Deputy Artistic Director

Sin Museop

부예술감독 신무섭



Ballet Master

Park 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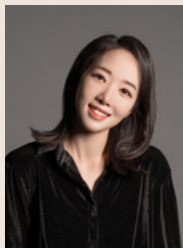
발레마스터 박일



Ballet Master

Jung Hyunok

발레마스터 정현옥



Ballet Master

Ahn Hyojin

발레마스터 안효진



Ballet Master

Lee Youngcheol

발레마스터 이영철



Guest Ballet Master

Renato Arismendi

게스트 발레마스터

레나토 아리스멘디

국립발레단 이사진&자문위원

KNB BOARD&CONSULTANT

이사진

명예이사장	이세웅	예술의전당 명예이사장
이사장	허명수	GS건설 상임고문
이사 (가나다순)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신현택	전)문화회 회장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
	윤태욱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이은영	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장선희	세종대학교 무용과 교수
	전홍조	성신여자대학교 무용예술학과 교수
	한상철	(주)제일약품 부사장
	허모연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전 총장
감사	김윤식	회계법인 청담 이사

자문위원

자문위원장	김매자	북경무용대학교 민족무용과 명예교수, 무용월간지 「몸」 발행인
자문위원 (가나다순)	김화숙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무용교육학회 명예회장
	장광열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겸임교수,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P) 대표
	장선희	세종대학교 무용과 교수
	허모연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전 총장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국립발레단 후원회

KNB SOCIETY

후원회 임원진

명예회장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회장

송병준 컴투스-게임빌 의장

자문역

한형석 ㈜연이개발 대표

고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

부회장 (가나다순)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사장

이은영 서울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후원회원

(가나다순)

고아라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구원희 한성플랜지 이사

권지혜 아이에스 지주 전무

김성혜 민트리온 이사

김한태 ㈜텔코웨어 대표

김대원 UIB코리아 부사장

김명섭 우노감정평가사 사무소 감정평가사

김세훈 ㈜어썬레이 대표

김수로 배우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이사

김하은

문윤희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

박경진 진주햄 대표

박경호 비오비엔터프라이즈 대표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박영주 ㈜아성 다이소 부사장

배동현 창성그룹 부회장

서영범 세아특수강 대표이사

성미화 e-Ballet shop 대표

신승호 ㈜P&A

상글래리티 주식회사

유영석 ㈜코빗 이사

윤관 BRV캐피탈매니지먼트 대표

윤정선 성보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윤현경 ㈜동화약품 상무

이건구 현대에이치티㈜ 대표이사/사장

이경태 이경태정형외과 박사

이지형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진욱 대림산업㈜ 상무

임홍서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선하 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전재범 금강공업 사장

정유리 KBS 한국방송 외신 통역사

조수현 플럼라인 대표이사 &

노던아크리조트 상무이사

최두준 ㈜동남유화 대표이사

최명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수준 로커스에듀 대표

하나금융그룹

한상철 ㈜제일약품 부사장

한승묵

한이봉 태평양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한혜주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인영 ㈜승산 대표

현지호 ㈜화승코퍼레이션 부회장

*국립발레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은 법인세 감면 혜택, 개인은 세액 공제 가능

*문의 : 국립발레단 홍보마케팅팀 (02-587-6181)

만든 사람들

STAFF

국립발레단 예술 스태프

단장 겸 예술감독	강수진
부예술감독	신무섭
발레마스터	박일 정현옥 안효진 이영철
게스트 발레마스터	레나토 아리스멘디
국립발레단	신무섭(교장) 노지영(전임교사)
부설 발레아카데미	발레교사 이종은 유수민 김지영 김정은 짐나스틱 방은지 피아니스트 정혜연 윤혜정 신슬기 심선영

국립발레단 사무국

사무국장	권영섭
경영관리팀	임오영(팀장) 신현승(차장) 이주영(차장) 이필재 김민희
공연기획팀	오자현(팀장) 이정(차장) 이정원 김민하 유정미
홍보마케팅팀	김현아(팀장) 오유선(차장) 박슬기 최소담 이다정 김태이
예술사원지원팀	심용희(팀장) 장승만(차장) 김원혁(차장) 최태은 아카데미 백승이 홍민지

기술 스태프

기술감독	박창모
무대감독	이영돈
무대조감독	최슬기
무대팀	러프(LUFF)(대표 권기찬)
무대스태프	이종필(차장) 진모세 서종민 최진석 최민수 홍정환 이해인 김지은 이지수
조명 영상디자이너	백시원(73 Company)
조명 프로그래머	한상웅
조명스태프	황종하 이수빈 남혜진 심효은 권민균 윤영한 서주희 김효중 서재연
영상 프로그래머	임채정
영상스태프	유민석 조영준 원우연
음악감독	김종욱
음향감독	박성진 오영훈
음악코디네이터	김희정 고보람 이지애
클래스반주	최선미 권경미 김지현
의상감독	김인옥
의상스태프	정지민 조은비 권나현
분장감독	박인혜
재활트레이너	고일안 이명재

국립극장

국립극장장	김철호
공연기획부	공연기획부장 선재규 공연기획팀장 이동현 기획위원 권태연(기획제작) 이재금(마케팅) 공연기획팀 최성민 전해담 마케팅 지원 오수정 고객지원팀장 최영락 티켓마스터 오윤지 하우스매니저 이지운 공연안내 이종민 권옥정 서틀버스 운영 오석원 김민성 서재광 어린이놀이방 김은희

무대예술부

무대예술부장	고상순
무대기술팀장	김호성
기술행정	이정행
안전관리	김동욱 박지용
무대감독	오상영
무대기계	김성식 이정환 정현철
조명	주영석
음향	이재식
영상	한기창 선혜지 김동건
무대미술팀장	전선택
미술행정	이명교
무대장치	송낙원 강규한 정성원

교육전시부

교육전시부장	강성구
홍보팀장	김성진(직무대리)
기획위원	구슬
SNS	강은빈
홈페이지	유정수

협력업체

사진	손자일 BAKI
영상	BoDA(대표 임정은)
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대표 곽중철)
옥외홍보물	서울21(대표 양재석) 애드팍(대표 김병국) 심애드(대표 김윤성) (주)킨비즈커뮤니케이션(대표 최경미)
인쇄	에이투(대표 유학기)
홍보물 디자인	손재익 그래픽 스튜디오(대표 손재익)

**KOREAN
NATIONAL
BALLET**
국립발레단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국립발레단은 관객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공연과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의견은 국립발레단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답례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참여 방법



1. 국립발레단 홈페이지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트위터)에 게시된 **‘〈허난설현-수월경희〉 고객만족도 조사’** 링크 클릭 → 설문참여
2. 인터넷 <http://naver.me/GnGiXfs9> 접속 → 설문참여
3. 핸드폰 QR코드 리더 앱 다운로드 후 시행 → 아래 QR코드 스캔 → 설문참여






※수집된 정보는 뉴스레터 발송과 통계자료 외의 타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KOREAN
NATIONAL
BALLET
국립발레단



 /kballet1962  /kballet1962

 @국립발레단  /KN_BALLET

 국립발레단 KOREAN NATIONAL BALLET